

정후식 칼럼



논설실장·이사

1936년 8월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 11회 올림픽에는 49개국에서 4000명이 가까운 선수들이 참가했다. 근대 올림픽이 개최된 이래 최대 규모였다. 사상 처음 그리스 올림피아에서 성화를 봉송했고, 라디오뿐만 아니라 텔레비전으로도 중계됐다. (덕분에 개막식 장면은 지금도 영상으로 생생하게 볼 수 있다.) 제1차 세계대전 패망 이후 국제적으로 고립됐던 독일은 어떻게 이처럼 성대하게 올림픽을 치를 수 있었을까.

도쿄, 베를린 판박이 되나

그 배경엔 히틀러의 정치적 야욕이 있었다. 그는 직접 대회 총재를 맡아 독일 민족과 나치(Nazi)의 우월성을 과시하고 폭력적 이미지를 희석시키려 했다. 10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웅장한 스타디움과 수많은 경기장을 지었다. 반면 유대인 박해의 흔적들은 철저히 지워 버렸다. 개막식에는 나치가 아리안족의 우월성을 과시하는 상징으로 내세우곤 했던 베토벤의 교향곡 9번 중 '환희의 송가'가 동원됐다. '모든 사람들은 형제가 되리'라는 인류애와 평화의 메시지가 6000여 명의 합창으로 울려 퍼졌다. 베를린 시내에는 나치의 휘장인 하켄

욱일기와 방사능, 그리고 올림픽

크로이츠(Hakenkreuz)가 오륜기와 함께 나누졌다. 이를 통해 히틀러는 인종 차별과 영토 확장 야심을 은폐하고 자신들이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라고 선전했다. 위장된 평화였지만, 그 전략에 전 세계가 넘어갔다. 그로부터 불과 3년 뒤 히틀러는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다. 내년 7월 개막되는 2020년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핵심은 욱일기와 방사능이다. 우선 일본은 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을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외부성이 앞장서 "일본에서 욱일기 디자인은 풍어기나 출산, 명절 등 일상생활 속 다양한 곳에 사용되고 있다"며 전통 문화의 일부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욱일기가 어떤 것발인가. 일장기의 태양 문양 주위에 퍼져 나가는 햇살을 형상화한 그것은, 일본이 아시아 각국을 침략할 때 사용했던 군기(軍旗) 아니던가. 군국주의와 제국주의를 상징하는 전범기로 통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패전 후 욱일기 사용이 일시 중단되었지만 1954년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저들은 지금도 군기로 사용한다. 해상자위대 깃발은 열여섯 줄, 육상자위대는 여덟 줄의 붉은 햇살이 그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독일이 전후 반(反)나치법 제정으로 나치의 상징인 하켄크로이츠 문양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한 것과 대비된다. 동아시아 각국에서는 욱일기 사용에 대해 일본이 침략의 역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긴다. 47개국이 가입한 아시아축구연맹(AFC)도 욱일기가 '정치적이고 차별적인 메시지'를 담은 것으로 규정한다.

그런가 하면 일본 정부는 도쿄 올림픽 기간에 동일본 대지진 피해 지역인 후쿠

시마 원전 부근에서 생산된 쌀 등 식자재를 선수권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나아가 야구와 소프트볼 등 일부 경기를 후쿠시마 원전 근처에서 개최하겠다고 했다. 더욱 기괴한 것은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에 100만 톤이 넘게 쏟아져 포화 상태에 이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다.

대회가 임박할수록 커져 가는 국제사회의 방사능에 대한 우려에 일본 정부는 '언더 컨트롤'(통제 하에 있다)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하지만 국내외 환경단체들은 일본 정부의 방사선량 모니터링 결과와 방사능 통제 능력에 잇따라 의문을 제기한다. 부실한 관리 실태가 속속 드러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4일 그린피스는 도쿄 올림픽 성화 봉송 릴레이 출발지에서 고선량 방사선 지점, 이른바 '핫 스팟'(hot spot)이 여러 개 발견됐다고 밝혔다. 수년간 집중적으로 제염 작업이 이뤄진 후쿠시마원 인근 J빌리지에서 원전 사고 이전보다 1775배나 많은 방사선이 측정됐다는 것이다.

평화 부르드며 '전쟁 국가'로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보면 도쿄 올림픽이 베를린 올림픽의 대자부로 여겨지는 것도 무리는 아닐 것이다. 아베 정부는 올림픽을 '후쿠시마 부흥'과 '새로운 일본'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기 위해 선전전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밖으로는 핵발전소 사고를 잘 수습한 '안전하고 평화로운 나라'라는 이미지를 심고, 안으로는 국민의 단합을 이끌어 내 장기 집권을 이

어려는 포석이다. 우경화를 무기로 일본 최장수 총리 기록을 이미 경신한 아베는 그동안 평화 헌법 개정을 '필생 과업'이라고 말해 왔다. 자국 보호를 위한 무장을 넘어 타국을 공격할 수 있는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바꿔 군사 대국화하려는 야심이다.

도쿄 올림픽 또한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하려는 일본 정부의 속내가 뻔히 들여다 보인다. 스포츠를 통해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올림픽 정신은 온데간데없다. '국화와 칼'의 이중성 속에서 평화보다 전쟁을 지향하는 면모가 여실히 드러난다. 그러나 일부에서 올림픽 보이콧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다. 일본은 침략의 역사에 대한 사죄와 반성언어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거나 세탁하여 국제 사회의 공분을 사왔다. 강제 징용 배상 판결 등 과거사 문제에 대한 불만에서 촉발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조치가 대표적 사례다.

작가 박경리는 '일본산고'에서 "일본을 이웃으로 둔 것은 우리 민족의 불운이었다. 일본이 이웃에 해를 끼치는 한 우리는 민족주의자일 수밖에 없다"고 일침을 놓았다. 그렇다. 일본이 주변국들에게 위해적 존재로 행동하는 한 공동 번영은 허상에 불과하다.

올림픽 경기장에 욱일기가 휘날린다면 일본의 침략이나 식민지 지배를 당한 국가들은 또다시 과거의 상처를 떠올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는 2차 가해나 다름없는 행위다. 지금이라도 일본 정부는 욱일기 허용을 철회해야 한다. 또한 각국 올림픽 대표 팀에 방사능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선수들이 이에 노출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기고



박흥석 대한적십자사 광주전남지사 회장

나눔이 희망이다

설한을 녹이는 따뜻한 이야기도 많다. 며칠 전 한 할머니를 만났다. 자녀들을 모두 출가시키고 서로 의지하며 검소하게 살던 노부부. 할아버지를 먼저 보내고 홀로 남은 할머니는 할아버지의 온기가 남은 보급자리를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큰 재산은 아니지만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면 좋겠다고 유산 기부 약정서에서 명했다.

할머니의 고운 마음이 외로운 이들을 따뜻하게 안아주리라 생각하니 가슴이 벅차다.

고아원에서 나와 홀로 자립해 광주에 살고 있는 한 청년이 가족도 친구도 없이 대양과 사무를 벌이고 있다.

이 젊은이에게 광주전남 희망풍차 나눔네트워크를 통해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전남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비를 부담하고, 적십자 봉사원과 결연을 맺어 생계비를 지원하고, LH에서 살 집을

마련해 주고, 해당 당사무소에서 밥솥과 전자레인지 등 살림 도구를 지원해 주었다.

희망풍차 광주전남 네트워크는 적십자가 우리 지역의 공공기관, 기업, 시민단체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나눔 플랫폼으로 모두가 행복 한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지난해 12월 출범했다. 지난 1년간 26개 기관이 참여하여 위기에 처한 150여 세대에게 희망을 전했다.

12월이면 적십자회비 지로 용지가 가정마다 전달된다. 100년 전 적십자회비는 독립군 부상자를 치료하고 그 가족을 지원하는 데 사용되었다.

오늘날 적십자회비는 갑작스런 재난과 화재를 당한 사람들에게 생필품이 되기도 하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에게 치료비, 생계비가, 보급자리가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으로 피어난다. 대한

적십자사 창립 구호 '널리 구제하고 고루 사랑하라'는 표어처럼 전 국민이 십시일반 참여하여 조성된 적십자회비는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돌보며 우리 사회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있다.

오늘도 우리가 참여한 적십자회비는 노란 조끼의 적십자 봉사원 12만여 명을 통해 재난 현장에 가장 먼저 달려가고, 어려운 이웃의 곁을 지키는 데 귀하게 사용되고 있다.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역사와 함께하며 고통 받는 이웃의 아픔을 보듬어 온 적십자. 올 겨울에도 적십자회비로 어려운 이웃에게 행복을 선물하면 어떨까.

모두가 행복하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 우리 자신과 후세들을 위한 가장 아름다운 선물이다. 나눔은 우리 모두가 잘 사는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투자임을 잊지 말자. 나눔이 희망이다. 나눔이 행복이다.

은편칼럼



김창균 광주예술고 교감

라떼 이즈 홀스

못한다'는 '전전반측'(顛轉反側)을 읊었다고 한다. 2위에 오른 '노이무공'(勞而無功, 온갖 애를 썼지만 보람이 없다)과 함께 현실의 벽에 대한 인식이 '자조(自勵)의 언어'로 고착화하는 느낌이다.

젊은 세대를 지칭하는 말은 시대상의 반영물이다.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사회로 진출했던 386세대 이후 젊은이들은 '88만 원 세대'로 불렸다. 당시 비정규직 평균 임금 119만 원에 20대의 평균 소득 비율 74%를 곱한 금액으로, 어린 나이에 IMF 금융 위기를 접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 속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상황이 은유한 말이었다. 이어 연애·결혼·출산을 포기해야 했던 '3포 세대'를 지나, 내 집 마련과 인간관계까지 포기한 '5포 세대', 나아가 꿈과 희망마저 버려야 하는 '7포 세대'가 등장했다. 이제는 모든 걸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뜻에서 젊은이들은 스스로를 'N포 세대'로 부르기 시작했다.

그러다 보니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족 즉, 학교나 일터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고, 구직하는 자로서 '적정'이 많아 잠을 이루지

고 있다.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한국 청년 보고서(Investing in Youth: Korea)에 따르면, 국내 청년 니트 비율이 18.4%로 OECD 평균 13.4%보다 높고, 특히 대졸 이상 고학력자는 OECD 평균보다 2.5배나 높았다.

반면교사가 될지 모르겠지만, 일본에서는 50대 장년이 된 자녀가 80대 부모의 고령 연금에 의존하는 이른바 8050이 사회 문제가 되었다. 히키코모리(引き籠もり, 은둔형 외톨이)라 불리던, 과거 장기 불황기에 집안에 틀어박혔던 젊은이를 방치한 결과가 오늘에 이른 것이다. 일본이 반성의 시점에서 서 있는 지금 우리는 지혜롭게 대처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얼마 전 행복 주택 광고에서는 "너는 좋겠다. 부모님이 집 얻어 주실 테니까"라는 말에 부유층 청년이 "내가 부럽다. 부모님 힘 안 빌려도 되니까"라고 응수하는, 흠수저의 박탈감을 조롱하는 듯한 내용이 젊은이들의 공분을 산 적이 있었다. 최근 세대로 우수목 학력과 계층, 직업의 다물림이 심화되면서 '개천에서 용 난다' 활동도 하지 않는 젊은이들이 일반화되

는 현상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유행 하러리는 '사피엔스'에서 역사상 제일 행복했던 이는 노동 시간이 가장 짧았던 수렵 채집 시대인들이었다고 했다. '한국은 더 일해야 하는 나라'라는 지적도 의미가 없지는 않지만, 열심히 일해도 가난을 면할 수 없는 '워킹 푸어'(Working Poor)에 대한 고민이 선행되어야 한다. 젊은이들이 희망을 버리면 집단적 우울감이나 무력감이 사회를 짓누르기에 사회 불평등이 지닌 파괴력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 점에서 앞의 취업 포털에서 진행한 또 다른 투표 결과는 고무적이다. '올해의 인물'을 투표한 결과, EBS 캐릭터 '팬수'가 방탄소년단(BTS)을 누르고 방송연예 분야 1위를 차지하였다. 비주류였던 팬수가 대세로 우뚝 선 이면에는 사장 이름을 거침없이 부르는 등 기존 권위에 주눅 들지 않는 '사이다 행보'가 있었다. "눈치 보지 말고 원하는 대로 살아라. 눈치 챙겨", "다 잘할 순 없다. 잘하는 게 분명 있을 거다. 그걸 더 잘하면 된다"는 팬수의 어록이 고달픈 젊은이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社說

광주형 일자리 '균열' 어떻게든 막아야

노사 상생을 기반으로 한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완성차 공장 기공식을 눈앞에 두고 또다시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광주시와 함께 사업의 양대 축인 한국노총 중심의 지역 노동계가 더 이상 참여하지 않기로 전격 결정했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지역 노동계는 최근 광주형 일자리 사업 참여를 전면 보이콧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가 16·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19 상생형 지역일자리 워크숍'에 참석하지 않았고, 오는 26일로 예정된 광주글로벌모터스 공장 기공식에도 불참하기로 했다.

이 같은 결정은 광주시와 사측이 지역 노동계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은 지난 9월 완성차 공장 건립 과정을 감시할 '시민자문위원회' 구성과 임원진 급어를 노동자 평균의 두 배 이내로 책정할 것, 현대차 출신 이사 경질,

노동이사제 도입 등에 대해 공개 질의했다. 그러나 광주시와 광주글로벌모터스는 지금까지 납득할 만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지역 노동계는 노사 상생의 정신이 부정되고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애초 목표로 한 상생형 일자리가 아니라 현대차의 광주 소형 공장 건립 사업에 그쳐 노동계에만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들러리를 서지 않겠다는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그동안 슬한 이견과 갈등이 있었지만 노사민정이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냈다. 만약 노동계가 이탈한다면 노사 갈등이 나 임금체계 조정 등이 원만치 않아 기존 대기업 공장처럼 노사분규가 일상화할 우려가 크다.

사업의 경쟁력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신뢰 관계 구축이 절실한 만큼 광주시와 사측은 노동계와 적극적인 대화로 접점을 찾아야 할 것이다.

경제통에 화합형 새 총리에 대한 기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69)을 국무총리로 지명했다. 국회의장 출신이 총리에 발탁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춘추관에서 직접 총리 인선을 발표했다.

전주 신홍조와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정세균 후보자는 쌍용그룹 상무와 참여정부 시절 산업자원부 장관을 역임한 대표적인 '경제통' 정치인으로 꼽힌다. 게다가 15대부터 내리 6선을 한 중진 의원으로, 민주당 당 대표와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 등을 역임하면서 야당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오, 화합형 정치인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전임 이낙연 총리에 이어 또 다시 호남 출신을 지명하는 데 대한 부담에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은 정세균 후보자를 발탁한 것은 임기 후반기 핵심 국정 기조로 경제 쟁기기를 강조하는 한편 통합과 협치를 통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꾀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통합과 화합으로 국민의 힘을 하나로 모으고 국민들께서 변화를 제가할 수 있도록 민생과 경제에서 성과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말한 문 대통령의 인선 배경 설명에서도 엿볼 수 있다.

물론 일각에서는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입법부 수장을 지냈던 인사가 국무총리를 맡는 건 적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부정적 입장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야당에서는 '입법부를 행정부 아래로 두려는 것'이라며 반발하는 분위기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우리는 위기에 직면한 경제 상황을 생각하고 사분오열된 정치 상황을 생각할 때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가장 잘 맞는 적임자가 정세균 후보라고 본다. 갈등과 분열의 정치가 극심한 이 시기에 새 총리는 야당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통합과 화합을 이끌고 또한 난마처럼 얽힌 경제 문제를 풀어 '함께 잘사는 나라'를 이루는 데 크게 기여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無等鼓

취업 준비생 A씨는 3년째 전남대 후문 원룸촌에서 친구와 살고 있다. 목표로 하는 직장은 다르지만 '취준생'이라는 공통점에 월세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직장인 B씨는 동료랑 나주 혁신도시 아파트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 둘 다 미혼이라 주말이면 전남 지역 관광이나 맛집 투어를 다닌다.

집 투어를 다니는 A씨는 아니지만 한 집에 사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이들을 가르쳐 '간헐적 가족'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1인 가구가 늘면서 가족의 형태도 다양해지고 있다. 전통적인 개념의 가족은 현연·혼인·입양 등

고, 1인 가구 비중은 9%에서 30% 가까이 증가했다. 2047년에는 1인 가구 비중이 40%에 육박하고 절반이 65세 이상의 고령자 가구로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가정법원은 이혼조정실 입구에 있던 '4인 가족상(像)'을 최근 철거했다. 47년전인 1972년 설치된 작품으로 2012년 서초동에서 양재동으로 이전한 후에도 청사를 지켜 왔는데, 서울번화사회가 4인 가족상이 요즘 가족 형태와 맞지 않다고 지적하자 철거한 것이다.

가족의 범위

가족의 범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변하고 있다. 여성가족부의 얼마 전 조사를 보면 국민으로 맺어진 사람들을 말한다. 가족 구성원 수는 네 명이 모델이다. 부부가 결혼해 두 명의 자녀를 낳는 것을 이상적인 가족으로 여겼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기초생활수급비나 이혼 시 양육비 산정도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제 1인 가구가 대세가 됐다. 통계청이 그제 발표한 자료를 보면 1인 가구 비중이 29.8%로 '부부+자녀' 가구(29.6%)를 처음으로 추월했다. 30년 만에 4인 가구 비중은 30%에서 17%로 줄

어졌다. 10명 중 6명은 가족 범위를 사실혼과 비혼 동거까지 넓히는 데 찬성했고, 생계와 주거를 공유한다면 가족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67.5%에 달했다.

아직도 우리 민법은 가족을 혈연과 혼인으로 연결된 2인 이상의 집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1인 가구는 애당초 가족을 이룰 수 없게 돼 있다. 열린 마음으로 가족 개념을 받아들이고 다양한 유형의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마련할 시점이 됐다. /정필수 전남본부장 bungy@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b>金汝松</b> 주필 <b>李洪載</b> 편집국장 <b>崔宰豪</b>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월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